

# 한국, 지난해 조선업 수주 세계 1위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해 수주액과 수주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년 연속 1위다.

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 집계 결과를 인용해 2019년 한국 선박 수주액이 943만CGT(건조난이도 고려한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선박발주 2,529만CGT의 37.3%를 한국이 수주한 것이다. 2위인 중국은 855만CGT였고 일본(328CGT)과 이탈리아(114CGT)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선박 수주액도 223억 달러로 역시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203억 달러, 이탈리아와 일본이 각각 75억 달러와 61억 달러였다.

한국은 특히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경쟁 우위를 보였다. 지난해 대형 LNG운반선 국제 발주물량 51척 중 48척(94%)을 한국이 도맡았다. 한국은 초대형 유조선

(VLCC)도 31척 중 18척(58%), 초대형컨테이너선 36척 중 22척(61%)도 수주했다.

한국 조선업계는 오랜 기간 세계 1위를 지켰으나 2015~2017년 3년 동안 중국에 1위의 자리를 내줬었다. 중국업체가 자국내 대규모 발주물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업체의 급성장과 세계 조선업 불황이 맞물리며 당시 구조조정 of 아픔을 맛보았다.

이 같은 조선업 회복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클락슨은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보다 52.2% 늘어난 3,85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와 카타르, 모잠비크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조선업이 계속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등 부문의 미래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의도의 2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강원·경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건축 또는 개발을 위해 군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토지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인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7,709만6,000㎡의 제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김포·과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 포함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해제 지역 79%는 강원, 19%는 경기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와 과주가 대상이다.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렵다. 제한 보호구역은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

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탁 대상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과 개발을 허가하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연천 화천 고성 등의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인출입통제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발전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앞으로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과의 협의가 면제된다. 또 폭발물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했던 것에서 증축·재축이 허용되며, 공공사업 때 도로 신설도 가능해진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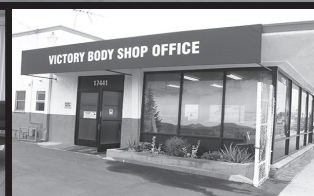
# 빅토리 바디샵

##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